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룩셈부르크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이사 50,4-7

회답송 | 시편 126(125), 1-2 ㄱ. 2 ㄷ ㄹ-3. 4-5. 6 (◎ 3 참조)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순, 부활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 「로마 미사경본」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루카’

영성체송 |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가 | 입당성가 10

예물준비 340

영성체 166

파견성가 124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장두현
하성구

생미사 지향

정종철 안드레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13일	백아백	민완준 이경자 고은경			김종선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조성윤
4월 19일	김유화	송명근 민재인 국민준	정은철 정유진	고은경	유종욱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조성윤
4월 20일	정유진	강호영	박인영	이경자	이영혜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조성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Sr.마리루시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재속프란치스코회 바자회(Bazaar)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5년 5월 4일(일) 9:00 am ~ 4:00 pm

장소: 성 프란치스코의 집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성주간 전례 안내

4/13	주님 수난 성지주일 (Palm Sunday)	AM. 09:15
4/17	주님 만찬 성 목요일 (Thursday of Holy Week)	PM. 7:00
4/18	주님 수난 성 금요일 (Good Friday of the Lord's Passion)	PM. 7:00
4/19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PM. 5:00
4/20	주님 부활 대축일 (Easter)	AM. 09:15

* 4/19(토)-4/21(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대축일 미사”는 성탄미사와 함께 가톨릭 신자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미사입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하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는 <새 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회 정규 회합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김용기(요셉) 형제님을 위한 연도 봉헌합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4월 성사반 개설

어린이: <첫영성체반> / 학생·성인: <견진성사반>

(견진성사 대상: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sb@gmail.com)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사회복지 분과 위원 모집

사회복지 분과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인원: 4명

문의: 516. 521. 3113 강호영 안드레아

본당 제의방 봉사자 구합니다!

본당 요청으로 미사 때마다 사용하는 모든 성작 관리 및 성작수건 세탁 봉사하실 분을 구합니다.

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예수회 배영길 신부의 기도를 그린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사랑을 다 퍼주고,
이제 나는
목마르다.

언제까지
저리 둘 것인가.
사랑을 받은 나는.

움직이지 않는
나를 향해
또 외친다.

“목마르다.”

“목마르다.”(요한 19, 28) 주님의 간 수난 여정 속 유독 내 가슴에 와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다.” 사랑에 목마른 주님께 시원한 물 한 잔 전해주는 마음으로 주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 말 한마디 전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인스타그램 @baeyounggil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옥토

WONJ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CLEAR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말씀 묵상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각자의 머리에 재를 얹으며 시작한 사순 시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오늘, 성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는 성지(聖枝) 축복과 행렬을 거행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또한 ‘주님의 수난기’를 들으며 성금요일에 이루어질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미리 묵상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수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후 만찬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채 예수님 홀로 수난의 길을 걷게 한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외쳤지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장들’, 제자의 칼에 찔린 오른쪽 귀를 치유 받은 ‘대사제의 종’,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하는 ‘대사제의 하녀’도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최고 의회 의원들’과 예루살렘 입성 때 환호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고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루카 23,21)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들려오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군중의 폭동과 지위 상실에 대한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라빠를 풀어주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하나의 조롱거리 장난감 정도로만 여기는 ‘헤로데’를 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으로 오르는 키레네 사람 ‘시몬’과 십자가의 길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저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다가 이유도 모른 채 석방된 ‘바라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겂옷을 나누어 가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며 빈정거리고 조롱한 ‘지도자들과 군사들’도 만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니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수 한 사람’과 예수님은 무죄임을 고백하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청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다른 죄수 한 사람’의 모습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백인대장’,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모심을 지켜보고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는 ‘갈릴래아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아리마태아 출신 최고 의회 의원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길에 자리한 이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각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새 계약의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루카 22,17-20 참조) 서로 섬기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루카 22,26-40 참조)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십니다.(루카 23,34 참조) 회개하는 이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루카 23,43 참조) 오후 세 시에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이제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 2,6-9 참조)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길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부활을 준비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 주간을 좀 더 의미 있게 가꾸어야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고 희망하는 부활 대축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필리 2,11)이시라고 기쁘게 고백합시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본당 주임), (출처: 『가톨릭신문』 4월 9일)